



<5부> '귀농' 꿈을 이룬 사람들

③ 양계농장 운영 김경호씨

“친환경 유정란 얼굴 내걸고 생산… AI도 비켜갔죠”



귀농 7년차인 김경호씨가 자신의 양계장에서 무항생제로 기르고 있는 닭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농장 곳곳에 귀농을 통해 '행복한 농사꾼'으로 거듭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이슬촌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행복한 농사꾼'이란 간판이 눈길을 끈다. 젊은 귀농인 김경호(40)씨가 운영하는 양계농장을 가르키는 뜻말이다. 농로를 따라 200m쯤 들어가면 배밭 사이에 김씨의 양계농장이 자리잡고 있다.

3개 동의 양계축사에는 2000여 마리의 닭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수탉들의 웅치는 소리는 일반 양계농장에서는 듣기 힘든 현상이지만 무항생제 양계장인 이곳에선 흔한 일이다.

농장 안내 팸플릿처럼 김씨는 행복한 농사꾼으로 성공한 귀농인이다. 그의 귀농이 주목받는 이유는 철저한 준비과정은 거친다면 젊은이들의 귀농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매출이 1억원을 넘는 '억대 부농'은 많지만 대부분이 농업법인이나 일반 농민들의 경우 순수입이 높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김씨의 사례는 실속있는 알짜 부농의 본보기라고 할만 하다.

김씨는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려 4000여 만원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다. 대도시 직장인들의 수입과 비교하면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퇴직 걱정없이 일하면서 꾸준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귀농인의 성공 모델로 꼽힐만 하다.

김씨는 올해로 귀농 7년째를 맞고 있다. 서울에서의 직장생활과 광주에서 시민단체 사무국장을 버리고 소박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찾아 귀농을 결정했다. 당초에는 지리산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 생각이었지만 아내의 권유로 현실적인 귀농을 선택했다. 신안 증도가 고향이지만 2005년 처가 소유의 집과 논이 있는 나주시 노안면에 정착했다.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터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3개월간 귀농학교에서 귀농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뒤 당시에는 귀하던 유정란 생산을 위해 양계농장을 선택했다. 경남 하동에서

귀농학교서 양계 전문과정 수료
직접 배달하고 생산 전과정 공개
주민들과 유대 키우고 신뢰 쌓아
귀농 7년째 年1억원대 부농 반열

양계전문 과정을 받고 귀농한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양계축사 짓는 법부터 배워 처음부터 무항생제 양계를 시도했다. 첫해에는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했지만 무항생제축산 인증을 받고 소비자들과 직거래로 신뢰를 쌓으면서 자리를 잡았다.

“시작할때부터 ‘얼굴있는 농장’을 만들자는 모토로 소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이다. 얼굴있는 농장은 소비자에게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다. 믿음직한 품질을 자신감으로 유정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했고 불과 가을에 소비자들을 자신의 농장에 초청해 생산과정을 직접 공개했다. 자연스럽게 소비자와의 신뢰가 쌓이면서 고객들의 충성도도 높아갔다.

김씨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은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닭과 계란 주문을 아예 끊지만 그의 고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김씨의 귀농이 성공한데는 점차 초기부터 주민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 도움이 됐다. 이슬촌은 크리스마스 마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로 천주교 신자가 많은 곳이다. 대학 때부터 천주교 동아리 활동을 해온 터라 주민의 90%가 천주교 신자인 마을의 분위기는 낯설지 않았지만 상당 차량봉사를 자청하고 어른들을 공손하게 대하는 친절함 태도가 없었다면 텃세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씨는 양계외에도 유기농 쌀과 배를 재배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양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 나머지 25%는 10마지기(2000평) 논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 판매로 이뤄지는데 조만간 배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00% 유기농 재배를 고집하다 배농사에 실패했지만 양계와 배농사를 병행하는 순환 유기농 배 재배 노하우가 쌓이면서 올해부터 저장성이 강한 '화산' 품종으로 묘목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농사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양계·쌀·배가 삼각축을 이뤄 가끔씩 반복되는 농업분야의 작목별 파동에도 걱정없이 버틸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씨의 귀농은 화려하지 않지만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귀농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그가 권하는 젊은 예비 귀농자에 대한 조언에도 울림이 있다.

“귀농 준비기간이 너무 길겁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성공할 것인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다보니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부딪치는 과감함이 때론 필요합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귀농 인턴제

일 배우며 月 120만원 수입
전남 59세 미만 을 65명 선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돈도 벌면서 귀농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귀농인턴제'가 인기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귀농 희망자가 실제 농가에서 생활하면서 귀농 체험과 함께 월 최대 1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의 50%(국비 35%, 지방비 15%)는 지원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행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턴에 지원하는 예비 귀농인과 농가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귀농 인구가 늘면서 신청자도 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05년~2011년 사이 251명이 귀농인턴제에 참가했고, '귀농인 실습 지원'으로 이름이 바뀐 올해는 6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7명은 농어촌 뉴타운인 '장성드림빌' 입주로 수요가 늘어난 장성군에 배정했다.

실습 희망자는 59세 미만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이면 가능하며 이들이 실습을 나가는 곳은 작목별 선도농가들이다.

나주시 노안면 김경호씨의 양계농장에도 서울에서 재단사로 일하다 귀농실습에 참가한 인턴이 한명 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 최정산 영농지원 담당은 "실습생들은 일을 배우면서 돈도 벌수 있고 농가도 저렴한 인건비에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며 "시설하우스 원예와 축산 등 고소득 작목 희망자가 많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Advertisement for moviehelic featuring Megabox and Columbus Cinema. Includes movie listings for 'The Dark Knight Rises' and 'The Avengers' with showtimes and prices.